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구일꾼 양성
민족복음과
세계 선교
이웃 사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려 1:3)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망이니라
(빌립보 1:21)

주간 충현

발행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성동 665-1 ☎ 02-552-8200 © 2004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이태복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

오늘, 추수감사주일 및 가족연합예배(2,3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로라”(고후 9:15).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사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고난을 당하였기 때문에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수없이 옥에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으며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잠도 편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고후 11:23-27).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생각 할 때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흥분이 되어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대체 바울은 무엇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라고 감탄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가리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복들을 인하여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엡 1:3). 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여러 번 죽을 뻔하여도, 굶주리고 헐벗어도 날마다 자신의 마음과 삶에 부어지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만 생각하면 어느 새 마음이 뜨거워지고 흥분이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감사 제목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인 복만 헤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을 헤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가 한 번의 예배로 끝나지 않고 이후의 모든 삶에서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관련기사 6면)



“주여, 우리를 복음의 나팔로 만들어 주소서”

오늘, 2005년도 제1차 CMTC훈련 개강

2005년도 단기선교를 위한 제1차 CMTC훈련이 오늘 개강됩니다. 2005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CMTC훈련이 실시될 예정이지만, 가능하면 일찍 CMTC훈련을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CMTC훈련을 통해서 2005년도 단기선교의 방향도 미리 익히고 마음의 준비도 철저히 하며 구체적으로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단기선교를 다녀올 대학생들은 물론이고, 2005년도 단기선교 사역에 동참할 모든 성도들은 이번 훈련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의일자 : 오늘(11월 28일)과 다음 주일(12월 5일)

강의시간 : 오후 6:10~8:10(찬양예배 직후)

강의장소 : 갈릴리움 외 기타장소

출연대상 : 2005년도 단기선교 참가자원자 및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참가접수 : 강의이자 전예(등록비 10,000원)

참 고 : 2004년도 CMTC교재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강의일정 :

11월 28일 (오늘)

제1강	선교의 성경적 기초	(오후 6:10~7:00)	갈릴리움
제2강	충현교회 비전과 선교정책	(오후 7:10~7:40)	갈릴리움
	전도특강	(오후 7:40~8:10)	갈릴리움

12월 5일 (다음주일)

제3강	세계선교의 흐름과 영적상황		
제4강	타종교 이해(선택강의)		
	종교권역별 사례발표(선택강의)		

“성탄절 연속 메시지 놓치지 말고 들으세요!”

금주 수요일예배(12월 1일)부터 위임목사님의 성탄절 연속 메시지 시작

성탄절이 한없이 세속화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께로 향하지 않고, 오히려 잊지도 않는 산타클로스와 화려한 선물과 축제, 그리고 사람들의 즐거움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탄생을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혜인지를 진지하게 배워야 할 것입니다. 금주 수요일예배(12월 1일)부터 성탄축하예배(12월 25일)까지 위임목사님의 성탄절 연속 메시지가 10회에 걸쳐 선전포에 예정됩니다. 수요일예배와 주일예배와 찬양예배를 통하여 계속 이어지는 성탄절 연속 메시지를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5년도 신임서리집사 · 권찰 교육

오늘 오후 3시, 갈릴리움에서

2005년도에 처음으로 서리집사와 권찰로 임명받으실 분들을 위한 교육이 오늘(28일) 오후 3시에 갈릴리움에서 실시됩니다. 2005년도에 처음으로 서리집사나 권찰로 임명받으실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번 훈련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고귀한 사명이므로 그만큼 정성스러운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고 실제적인 훈련도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므로 한 분도 빠짐없이 성실한 마음으로 이번 훈련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교회의 모든 공예배와 금요집회에도 성실히 참석하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더 확고하게 붙잡고서 복음의 증인으로 더 힘차게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교회 일정

8일(수)	정기당회	25일(토)	성탄축하예배(오전 9시, 11시)
12일(주일)	2005년도 선교성명회(목사장로)	26일(주일)	제6차 학승세례식 교구총회(4부예배 후) 공동의회(찬양예배 후)
19일(주일)	은퇴/군속자 포상식(찬양예배) 특별제직회		
21일(화)	성탄축하 찬양의 밤(교회학교)		
24일(금)	메시야 연합찬양	31일(금)	충현총장의 밤(금요집회)

WONDERFUL

"For a child will be born to us, a son will be given to us; and the government will rest on His shoulders; and His nam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ternal Father, Prince of Peace." (Isaiah 9:6)

Isaiah prophesied about the birth of Jesus Christ more than 700 years before He was actually born. The Old Testament not only mentions His birth, but also talks about His life, death, and coming kingdom. In today's Bible verse, Isaiah lists several different names that explain His perfections. The first descriptive word he uses is "Wonderful". Wonderful regularly means "supernatural" (cf. Jdg. 13:18), so Isaiah refers to Messiah as supernatural. Certainly, this earth has had many heroes. Historical writings document their accomplished works after birth, but not before. Messiah is the only person historically written about before His birth. As such, there is no one else like Him on this earth. There is no one before, during, or after His life who can claim the name Wonderful, for He alone is Wonderful!

Jesus' birth was wonderful! Isaiah prophesied, "Behold, a virgin will be with child and bear a son, and she will call His name Immanuel" (Is. 7:14). This prophecy not only mentioned Jesus' miracle birth, but also that in His presence God would be with us. Are not these wonderful words, spoken some 700 years before Jesus' birth, truly wonderful? An angel of the Lord told the Virgin Mary, "Do not be afraid, Mary; for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And behold, you will conceive in your womb and bear a son, and you shall name Him Jesus" (Lk. 1:30-31). Is not this message wonderful in itself? Mary did not have to fear, for she had God's favor, in conceiving Jesus through the Holy Spirit, not man. The angel further said, "He will be great and will be called the Son of the Most High; and the Lord God will give Him the throne of His father David" (Lk. 1:32). God's angel even explained to Mary, "The Holy Spirit will come upon you, and the power of the Most High will overshadow you; and for that reason the holy Child shall be called the Son of God" (Lk. 1:35). Everything about Jesus' birth was wonderful. It was something that could happen only once, not only once, but also never again.

Jesus' life was wonderful! Soon after his birth, three Gentile wise men came to visit Him. They went to Jerusalem asking King Herod, "Where is He who has been born King of the Jews? For we saw His star in the east and have come to worship Him" (Mt. 2:2). When King Herod heard this, he was troubled, and all Jerusalem with him. Is not it wonderful that this earthly king was scared? He and the high religious officials did not know that Jesus would be born in Bethlehem. They did not understand Micah's prophecy, "But as for you, Bethlehem Ephraim, too little to be among the clans of Judah, from you One will go forth for Me to be ruler in Israel. His goings forth are from long ago, from the days of eternity" (Mi. 5:2). The King

of Kings humbled Himself to be born in a Bethlehem manger. Isaiah prophesied, "For He grew up before Him like a tender shoot, and like a root out of parched ground; He has no stately form or majesty that we should look upon Him, nor appearance that we should be attracted to Him" (Is. 53:2). His life was so wonderful. He understood the hardships of the sick, weak, and poor. He was a friend to sinners. He always helps those who seek eternal life. Colossians 1:15-17 says, "And He is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the firstborn of all creation. For by Him all things were created, both in the heavens and on earth, visible and invisible, whether thrones or dominions or rulers or authorities- all things have been created through Him and for Him. He is before all things, and in Him all things hold together." Is not that wonderful. His life so powerful, yet His living so humble? Isaiah paints this picture of the life of the Messiah, "Each will be like a refuge from the wind and a shelter from the storm, like streams of water in a dry country, like the shade of a huge rock in a parched land" (Is. 32:2). This is our Wonderful Jesus. His wonderful life redeems us and gives us new life. Is not His life truly, truly wonderful?

Jesus' death was wonderful! Isaiah prophesied, "But He was pierced through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the chastening for our well-being fell upon Him, and by His scourging we are healed" (Is. 53:5). Jesus suffered vicariously for our sins. He suffered and died upon a cross, so that you and I could receive eternal life through faith in God's wonderful grace. Hebrews 9:27-28 says, "And inasmuch as it is appointed for men to die once and after this comes judgment, so Christ also, having been offered once to bear the sins of many, will appear a second time for salvation without reference to sin, to those who eagerly await Him." Is not His death itself wonderful?

Jesus will be wonderful in His coming kingdom! Isaiah prophesied, "No lion will be there, nor will any vicious beast go up on it; these will not be found there. But the redeemed will walk there, and the ransomed of the Lord will return and come with joyful shouting to Zion, with everlasting joy upon their heads. They will find gladness and joy, and sorrow and sighing will flee away" (Is. 35:9-10). The Lord's eternal kingdom is going to be wonderful. There will be no evil things, no crying, and no end to eternal happiness. All the redeemed will live forever there.

My dear friend, the Christmas season is upon us. Is the Messiah, Jesus Christ, wonderful to you? Trust Him, and you will find He is Wonderful. I hope you have this blessing which can only be found in Him who is Wonderful. 🙏

기묘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사 9:6)



김성완 목사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언급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장차 올 왕국에 관해서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완전함을 설명해 주는 여러 가지 이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사가야 제일 먼저 사용한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흔히 기묘한이라는 단어는 초자연적인이라는 뜻입니다(삿 13:18 참조). 그러므로 이사가야는 메시아를 초자연적인 분이라고 일컫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이 땅에는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 행한 놀라운 업적들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의 일은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태어나기 이전의 일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오직 메시아 한 분 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세상에서는 메시아와 같은 분이 전혀 없습니다. 기묘자라는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메시아의 탄생 이전에 도 없었고 메시아 당시에도 없었으며 메시아 탄생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묘자이기 때문입니다.

탄생의 기묘함

예수님의 탄생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 7:14). 이 예언은 예수님의 기적적인 탄생을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입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도 언급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700여 년 전에 예언된 이 놀라운 말씀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눅 1:30-31). 여러분, 이 메시지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마리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에게 내려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잉태하였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자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자에게 주시리라”(눅 1:32). 하나님의 천사는 마리아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눅 1:35).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모든 것은 다 신비롭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 번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으며, 두 번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생애의 기묘함

예수님의 생애 역시 기묘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얼마 후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 왕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도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므로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마 2:2). 이 말을 듣고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세상 임금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미가의 예언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타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 자라도 이스라엘에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미 5:2). 만왕

의 왕이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일찍이 이사가는 예언했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사 53:2). 예수님의 생애는 지극히 기묘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의 고충을 이해하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이셨습니다. 영생을 구하는 사람들을 언제나 도와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17절은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의 생애는 그토록 권세 있었으나 그의 삶은 지극히 겸손하였습니다. 이사가는 메시아의 생애를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밧줄 같을 것이며 곧바른 땅에 큰 바위 같이 같으리니”(사 32:2). 이 분이 우리의 기묘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기묘한 생애는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참으로, 참으로 기묘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기묘함

예수님의 죽음 역시 기묘했습니다. 이사가는 예언하였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사 53:3).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어 9장 27-28절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의 죽음에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천국의 기묘함

장차 임할 천국에서도 예수님은 기묘자입니다. 이사가는 예언하였습니다.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한은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화관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니”(사 35:9-10). 주님의 영원한 나라는 기묘할 것입니다. 그곳에는 악한 것이나 우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며 영원한 행복이 한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구속받은 백성들은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묘자로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알게 될 것입니다. 기묘자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이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

수요1부 예배 메시지

요나의 감사
(은 2:1-9)

구원을 받은 이들에게는 언제나 감사의 신 양과 기도가 넘친다. 모세는 홍해를 건넌 후에 감사의 찬미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여호와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출 15:2).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힘'과 '노래'와 '구원'으로 믿으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의 힘이요 노래며 구원이신가? 우리의 입술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언제나 감사의 찬송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한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장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출 15:13). 성전을 건축한 후에 솔로몬은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하여 열드 경배하며 감사하였다(대하 7:1-3).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기를 바란다. 보혈의 능력을 인하여 감사하기를 바란다. 오늘 본문의 요나 역시 고난 속에 던져진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였고 그 기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후에 감사의 찬송을 올린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은 2:9).

위험한 곳에서 감사한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다(은 1장). 그런 요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대풍을 예비해 놓으셨다. 대풍을 만난 요나의 배는 바다 한 가운데서 거의 깨어져 버렸다. 마침내 요나는 자신으로 인해 그러한 곤경이 닥친 줄 깨닫고 하나님께 항복하기 시작한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은 1:12). 요나는 회개하기를 시작한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다.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가워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하게 여긴다. 자기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한다. 이렇게 회개하는 요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하여 그 속에 있을 삼아 요나를 기두어놓으셨다. 겉으로 볼 때는 위험천만한 환경이었지만 사실은 기도의 시간이었었고 기도의 장소였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가? 낙심하지 말고 그곳을 기도의 시간과 장소로 삼아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신다.

하나님께 호소할 수가 있다

요나는 극한 고난 속에 있었지만 고통과 자비를 구할 수 있었다. "가로되 내가 받은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삽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삽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은 2:2).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물고기 뱃속!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시 65:2). 그러니 포기하지 말라. 진정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드리는 기도이든지 모든 기도를 다 듣고 응답하신다. 그러므로 호흡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 앞에 경배를 드리자(사 66:23). 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진실로 열드 경배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의 기도로 끝을 이룬다

처음에 요나는 울며 회개하며 기도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감사의 기도로 끝을 맺고 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은 2:9). 요나는 자기 고집을 따라 잘못된 길로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요나는 이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있다. 우리의 감사도 이러한 내 용이기를 바란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 자신은 더럽고 추한 죄인을 뵈었다. 심지어 우리에게 있는 신앙적인 열심도 어리석고 거짓될 뿐이다.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롬 3:23). 그러나 헛된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열드 회개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 감추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다. 죄의 삶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롬 6:23). 온 우주를보다 더 귀한 아들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늘과 땅도 재물이 없고 놀라운 은혜이다. 이것이 비하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배설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아들을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요 3:16)를 믿는 신앙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기를 바란다(롬 10:9,10).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혹시 요나처럼 우리 자신의 의와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감사의 삶으로 끝을 맺게 된다. 이 세상에 밀린 모든 것들이 다 풀리는 그 날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붙들어 주시며 감사로 인생을 바치게 하시고 또 저 하늘에서 영원토록 감사의 삶을 기쁘게 살게 하실 것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그 성령을 송축하라"(시 103:1). 아멘!

권사칼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리

원진희 (권사, 3지회장)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권사와 3지회장으로 임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마음 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잘못' 아닌 것이겠지요. 저는 못해요. 두려워요.' 한참을 그렇게 생각하며 두려워하다가 절그릇 같은 자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한 직분 주셔서 쓰시겠다는 주인의 권한을 내 어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서는 주님의 뜻에 부족한 제 자신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리라 다짐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생애가 섬김과 희생이고 봉사의 삶이었으니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교회 안에서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바로 알아 감사하며 기도하며 최상의 가치 있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굳게 의지하리라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 이 말씀이 울 한해 권사회를 섬기는 동안 제게 의지가 되고 체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싶으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한없이 부족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의지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27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호흡하며 새롭게 일하는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다. 두려움도 염려도 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최선을 다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찾으시는 일꾼은 세상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과 열성이 필요한 것이니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며 하늘을 감동케 하십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도 없습디다. 오직 회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가면서 연속속이고, 교회주변청소며, 기도원 봉사며, 모든 일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그 일들을 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명령하시니 명령에 순종하는 겸손으로 봉사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회원들과 함께 호흡하며 더욱 새롭고 진정한 3지회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께 향한 헌신이 기쁨이 되도록 힘써 섬기겠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부족한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비록 가치 없는 헌신이지만 이것을 사용하여 주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더 견고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후회없는 선택

솔직히 처음에 단기선교를 할 사람을 모집할 때 전정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여 다른 나라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겠다는 생각보다는 나도 외국에 한번 가보자는 생각이 컸던 것 같다. 이런 마음 때문에 선교에 가기 전에 준비하는 모든 것이 몹시 힘들고 지쳤었다. 하지만 출발일이 서서히 다가오면서 이런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런 마음으로 선교지에 간다면 정말 한 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금씩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언어연습도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역시 선교지에 도착할 때까지는 관광을 가는 듯한 마음은 버릴 수가 없었다.

처음 사역을 나갔던 날, 나와는 다른 생각들을 갖고 다른 생활을 하는 현지 사람들에게 선포 예수님을 전하러 나서기가 어려웠다. 선교하기 전 그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나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겼고 좀 더 길게 말할 수도 있었다. 그렇게 하루하루 전도를 해가다보니 오늘은 전도지를 몇 장이나 나누어 주었는지, 오늘은 얼마나 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는지에만 몰두하기 시작했고, 정작 그들 중 몇 명이 전도지의 내용을 차근차근 읽고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었는지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내가 전도지를 나누어줄 때 웃으면서 받아주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 내가 다정스럽게 대했기 때문이라고, 내 공이 크다고만 생각했다. 정작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 사실을 잊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이러한 사실을 서서히 알게 되었고 그 후에는 조금 더 겸손한 마음으로 선교에 임할 수 있었다. 늦게라도 그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처음 가는 선교, 선생님 두 분을 빼고는 모두 친구들보다 많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을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할만 적도 많았다. 다른 팀들이 생각하면 자기 멋대로여서 잘못되었다고 할 것들도 많았지만 우리로서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었고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그곳까지 이끄셨던 주님을 만난 것에 감사할 수 있었고 주님이 지으신 곳은 모두가 아름답다는 것도 느낄 수가 있었다.

집을 떠나서 며칠 동안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나 자신의 신앙도 많은 성장을 했다. 그곳 사람들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정말 좋았던 선교였다. 고등학교생으로서 공부에 몰두해야 할 방향을 분명 선교에 보냈어도 절대 후회는 없다. 오히려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아까운 방향을 보낼 수 있었는데 선교로 인해 많은 것을 얻어서 더 좋다. 이번 선교로 배운 많은 것들이 다음에 선교 갈 때 사용될지 바란다. 항상 감사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김혜원(고등부)

예수를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팀의 운전기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 우리를 만나고 느낀 점을 기록한 내용을 소개해드리 합니다.

"간단히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저는 기사로서 자동차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평범 돈을 벌려고 이밖에 나왔는데 생각 밖으로 이번 여행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제가 주님과 인연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주의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계심을 알았으며 우주의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의 경영에 순종하며 일했는지, 또 인간이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사실을 알았으며,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여 인간의 죄를 대속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예수님이 제 영혼의 죄를 씻어 주심을 믿습니다. 저에게 두 번째 생명을 주시길 구합니다. 지식이 짧아서 여기서 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사역지에 도착해서 운전기사님께 성경을 간네주었습니다. 그는 그 후 틈만 나면 혼자서 성경을 읽었고 통역을 통하여 많은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하는 경건의 시간에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금요일 오후에 숙소에서 영접기도를 했습니다.

김종록 (인수집사, 11교구)

■ 현재 사역중인 선교팀

기간	팀장
11월 25일(목)~12월 2일(목)	정아부 김성호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하게 하시기를 구하러"
(골 4:3a)

우리가 약할 때 강하신 하나님

우리 선교팀은 평균 연령이 60세입니다. 더욱 근심되는 일은 권사님들 중 두 분이 관절염이었고, 두 분의 집사님이 위장병을 앓고 있었으며, 만성 위염을 앓고 있는 집사님, 몸이 허약해서 출발 전에 영양제 링거를 맞고 출발하시는 권사님도 계셨습니다. 게다가 팀장인 저는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를 몹시 절렸습니다. 한마디로 형편없는 팀이었습니다. 결이아서는 종합병원 환자들을 팀으로 구성하여 선교지로 향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선교 사역에 일일이 간섭하시고 주창하셨습니다. 담력을 갖고 힘차게 사역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단원들의 간중마다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팀의 사역지에는 경찰들이 많아 우리는 철저히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사역을 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한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주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다녀와서 그 잠깐의 시간 동안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은 전도를 하였고 어떤 현지인 자매 한 명을 데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그리스도인이 나 한 명뿐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집에 와서 기도를 해 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팀은 그 가정을 방문하여 기도한 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 도중 그녀는 자신의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몇 년 전 홍수로 성경이 흠뻑물에 젖어서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가슴이 저미어왔습니다. 그녀는 성경이 더 있으면 이곳에서 열심히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이튿날, 우리는 성경을 사서 소포로 그녀에게 보내려고 우체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우체국에 갔을 때는 총경사가 나타나서 외국인이 자국민에게 성경을 보내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우리의 위법사항을 경찰에게 알려야겠다고 말하자 우리의 통역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운전기사가 나서서 우리를 강력하게 변호했습니다. 이후 우리는 무사히 성경을 발송할 수 있었습니다. 어췌와이래를 체험하였고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손은 묵도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팀원들은 크게 담력을 얻어 더욱 힘차게 선교활동을 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뜨거운 감사가 넘쳐나게 되니까 피곤한 줄도 모르고 열심히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처럼 형편없는 팀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던 이번 선교! 연약한 우리 팀을 사용하신 이유는, 아마도 다른 이들로 하여금 평범하게 하려는 주님의 뜻이 아닐까요? 우리가 잘못 다닌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안하여지길 소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상범(인수집사, 16교구)

두근두근 선교일이 ㉠

매일 예수님을 만나다

어느날 선교지 숙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친구들과 밤새 찬양과 기도를 하다가 잠을 청하였다. 친구들하고만 찬양할 때에는 진행도 별로 순조롭지 못하고 은혜도 받지 못했는데 집사님 몇 분과 같이 찬양을 하니 눈물이 마구 쏟아졌다. 그때 많은 것을 회개하고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하였다. 우리와 같이 밤을 지새워주신 집사님들께 정말 감사했다.

선교지에 가는 날 중동부 수련회가 시작되어서 수련회는 참석을 못하였다. 그래서 그 대신 '매일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매일 찬송을 부를 때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불어오르는 것을 많이 느꼈다. 내년에 고등부로 올라가게 되는데 고등부는 고등부 학생들끼리 따로 선교를 간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앞으로 고구림에 속해서 여러 집사님들과 함께 가고 싶다. 이번 해에 집사님들과 같이 가서 함께 찬송도 하고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선교할 때 무슬림들은 정말 개인적으로 상대하기 힘들었다. 나는 아직까지 교회만 오래 다녔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다. 그 사람들에게 알리기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들의 대가 대조가 되어서 하나님께 속했다. 이슬람과 표전상의 내용은 거의 기독교와 비슷한 것 같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단지 메시지만 전하는 분이라고 믿고 있다. 이것을 듣고 이들이 예수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무슬림들과 얘기를 하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리서 너무 답답했다.

우리들이 육적인 호환에는 무슬림 반, 힌두교인 반이었다. 호환의 힌두교인들은 착한 사람들이고 그 동안 정도 들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여러 신들과 같이 섬긴다고 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야 하는 데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믿는 것이다. 내가 다녀 온 선교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이진환 (중등3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시 75:1)

♥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되고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배울 때와 찬송할 때마다 은혜로 가득하니 감사합니다. 저와 교통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모시는 분들이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목표한 봉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발 더 들어서게 하시고 하나님과 약속한 바를 금주, 금연, 성실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김근환(새가족부)

♥ “손자, 손녀가 믿음생활을 잘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백신정(집사, 5교구)

♥ “매일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공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최승민, 박인경(집사부부, 1교구)

♥ “친정어머니께서 영혼 구원받고 소천하심 감사합니다.” 손명인(집사, 8교구)

♥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선생님들에 배우는 말씀이 은혜로운 한 해였습니다. 저를 교회로 인도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박팔영(새가족부)

♥ “올해 저를 교회로 인도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송민현(새가족부)

♥ “저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떠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영(집사, 9교구)

♥ “단기선교 중에 문서사역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주셨고 영원하던 도서 수출을 가능케 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강여경(집사, 3교구)

♥ “소중한 ‘단오’가 태어났어요! 세상은 위험투성이. 엄마의 걱정은 한도끝도 없는데, 아! 하나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하죠!” 주영혜(청년2부)

♥ “목탁소리와 향불이 압도하던 시어머니의 불교식 정례식에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오셔서 첫 예배를 인도하심에 감격하였습니다.” 홍영희(집사, 4교구)

♥ “어려운 가정형편 가운데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전보은(청년부)

♥ “단기선교를 다녀온 후 믿음이 더 커져 이제는 웬만큼 힘든 일이 닥쳐도 담대하게 주의 인도를 바라게 하신다.” 권진희(청년부)

♥ “하나님께서 좋은 주의 종을 통해 마음을 가르쳐 주신 한해였습니다.” 정화은(청년부)

복음은 예수라!

모든것이 하나님의 것

예수님 사랑해요!

피조물이여!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가을의 들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와 풍성한 은혜에
고개 숙이고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보라.
생명주신 주께 경배 드릴 수밖에 없다.

주 인류 위하여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와 하나님의 아들을
포기한 그 사랑 깨달아 우리도 십자가 앞에 자 자신을
포기함이 마땅하다.

이제는
말씀에 굳게 서서 마마는 땅에 성령의 도구로
복음의 씨 뿌리면 주께서 번비 내려 열매 맺게 하시어
온유한 열곡 되게 하시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조준민(인수집사, 7교구)

나는 지금까지 '추수감사절은 막연히 일년
에 한번 헌금을 내는 날' 이라고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은 영국 청교도가 미국에 가
서 첫째 추수한 것을 감사한 것이 시초가 되었
다고 한다. 추수감사절에 대해 더 알아보고
목사님께 여쭈어보니 신명기 24장 19절을 찾아
보라고 하였다. 신명기 24장 19절을 보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베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버렸거
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 네 손으로 하는 밭사에 복을 내리시리라'라
고 써 있었다.

우리가 어떤 수익이 있을 때 10분의 1을 드리
는 것처럼 우리의 수익의 일부를 드림으로써 모
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우
리의 행실을 보시고 복을 내리시리라고 약속하
셨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가
장 큰 복은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
닐까 생각한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동행
할 수 있는 큰 복을 주심이
너무나 감사하다. 앞으로는
추수감사절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감사
함으로써 겸손한 마음을 가
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아갈 것이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
는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부활시켰다는 글을 읽었다.
링컨은 왜 추수감사절을 부
활시켰을까? 그건 아마도
'링컨 대통령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일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
을 해본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
을 보살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 많다. 지금까
지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신 것, 그
중에서도 가장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
시고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것이다. 우리들은 하
나님께 구하지 않고 사는 것이 없다. 심지어는
우리가 숨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
야만 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
며 늘 기도를 하는가?

아니다. 나는 기도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를 기도해 들어 주실 것을 믿지 않고 기도하기
도 했고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해 찬양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 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
에서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
고 끝까지 돌봐주신다. 정말 그런 하나님을 좋
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앞으로는 하나님을 기
쁘게 하는 내가 되어야겠다.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호원(동부1부)



정지현(중동2부)

교회탐방

43 대학부

주님의 일은 주님께서

1년만 대학부에서 임. 역원으로 봉사해왔던 청년들이 새로 선출된 임. 역원에게 봉사의 자리를 넘긴다. 이와 더불어 예배시간이 조정되어 새로운 마음으로 2005년을 출발한다. 2004년 한 해 구. 임. 역원들이 추수한 것과 감사한 아이기들을 돌본다.

김요민(전 회장)

작년 이때때는 제가 회장의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스스로 물러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것이 아니라 나의 고백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는 것인데 저는 그것을 제가 한다고 생각했었고, 저는 회장이면서도 대학부의 규칙을 어기기도 하는 등 많이 부족했습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실족할 지경에 이르렀을 것 같아 고백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고 회개할 길이 있었습니다.

대학부 토요일 예배 시간대가 앞당겨졌는데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장점은 일찍 귀가하므로 청년 준비가 수월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러나 대학부 예배 후에 청년부 예배가 바로 있어서 같은 장소에서 충분한 교제를 나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주일의 경우 제2교육관 사용에 관한 지침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언제 어떻게 어디를 사용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몇 주 지나보면 알게 되겠지요.

이선화(전 부회장)

인간적으로 보면 저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임원을 소망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원 제의를 받고 2주간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임원을 소망하게 되었죠.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임원을 하며 기도의 중요성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약하고 자신이 없다보니 기도에도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어 제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은 치밀하고 계획적입니다. 저에게 치밀하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계획적으로 훈련시키십니다. 앞으로의 주님의 계획이 기대됩니다. 임원은 여기서 마치지만 천국은 그 날까지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고 싶습니다.

조용민(전 총무)

제게는 올 한 해가 구체적으로 믿음을 갖게 된 해였습니다. 구체적인 믿음이 없어 어떻게 임원을 했는지도 사실 모르겠지만 저에게 그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배운 것이 큰 수확입니다. 그 이전에는 인간적인 계획이 아주 많았고 그러다보니 일이 잘 되면 제 스스로를 칭찬하거나 혹은 칭찬을 받기 위해 일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게 된 후에는 그 모든 계획들이 다 내 고백에서 나온 것임을 깨달았고 그 이후로는 기도와며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시간이 바뀐 것 자체는 예배가 이 시간대에 끝나니까 대학부에서 볼 때 좋은 점이 많습니. 그러나 장소 사용에 있어서 제각각 생각이 다르니 예배 이외의 교제를 나눌 때 장소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같은 장소를 쓰는 부서와 이해와 양보의 마음으로



송정민(전 관리)

처음에는 특별한 목표나 생각 없이 임원을 시작했습니다. 임원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공동체의 각 개인은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한편 그리스도의 색깔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나 개인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리스도의 색깔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보며 기도의 범위와 다른 사람들로, 공동체로 나중에는 열방으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예배시간이 바뀐 것은 여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에 귀가하면 부모님의 눈치도 보아야 등 여러 제약도 있었는데 이제 임원 집회에 갈 수 있으니까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니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곧 안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송민규(전 관리)

임원을 하기 전에는 제 나름대로의 잣대로 교회와 대학부를 재단하고 있었는데 임원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데를 알았습니다. 그 때에 제 자신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공동체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대학부 임원이기 이전에 주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대학부 임원이라는 정체성이 우선되면 일이 우선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의 우선되면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시간 변경의 가장 좋은 점은 전혀 멀어졌던 대학부와 청년부가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학부와 청년부가 서로 교류하며 의견을 나누지 않으면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부 예배 직후 청년부 예배니까 교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김지호(현 회장)

작년에 기획위원으로 대학부에서 봉사했습니다. 작년년 기획부에서 일할 때에는 일에 대한 소망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주님의 소망을 간구하고 지나가치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마음에는 약한 마음들이 많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발견하며 뒤늦게야 나의 영적인 연약함을 알았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 곧 해 회장님으로 선출되었는데, 올해에는 일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주님께 대한 소망을 바라고 기도하며 이루어 나갔 습니다.

(편지집)

다움 주일 찬송

이새의 뿌리에서(106장)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예언의 성취를 노래한 찬송집만 작성자나 작곡자 모두 알려지지 않았고 찬송의 기원도 모호하다.

이 찬송은 이시야 11장1-2절 그리고 10절의 "이새의 줄기에서 한 뿌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호와 그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예호와 재능을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뿌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쓰였다.

예수께서 오실 때 세상은 거울처럼 황폐해졌고 흙과 찌꺼기였으며 캄캄하였다. 세상은 증오와 무자비한 검은 재로 덮여 있었다. 이 추하고 쓸쓸한 세상에 예수께서 장미로 단장하시어 사랑과 자비와 아름다움의 향기를 발하셨다. 그는 인간으로 나셨으나 완전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선지자 이시야 예언의 성취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노래한 것이다.

이제 성탄의 예수를 맞이하는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 우리 모두 힘있게, 우리를 위해서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힘있게 찬양하도록 하자.

(찬양원회)

새·가·족·을·한·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838	은혜동	12 청년2부	박영준	2851	이혜영	15 예배대부		2864	문신	19 외선부	이성진(12)
2839	김승혜	14 청년1부	박영준	2852	최이나	19 대학부	오은경(10)	2865	두진지	19 외선부	김현배(10)
2840	고유미	19 대학부	김은정	2853	서현원	7 청년부	김미재(17)	2866	서수정	19 외선부	장종호(1)
2841	양원정	19 청년1부	이현숙	2854	문은숙	1 청년부	조진경	2867	맹병호	19 외선부	장종호(1)
2842	임원철	9 소망부	최향숙	2855	장성혜	1 청년부	김승혜(1)	2868	채리광	19 외선부	김현배(10)
2843	이봉남	10 청년1부	오영준(10)	2856	전진희	13 청년부	이근덕(1)	2869	김정현	19 고등부	김희정(1)
2844	이혜정	1 청년2부	김형재	2857	정종숙	13 청년부	이근덕(1)	2870	한형식	19 청년1부	이종현(19)
2845	이연식	19 고등부	이기봉	2858	김다라	19 초등2부	김남희	2871	이성민	18 청년2부	신옥자(18)
2846	박용정	19 청년1부	이보선(1)	2859	김미라	19 초등2부	박옥경(17)	2872	서은정	19 청년1부	윤선민(17)
2847	노규하	19 청년1부		2860	이선익	1 청년부	유용호(3)	2873	이진희	7 청년2부	오영혜(12)
2848	박영숙	12 청년부		2861	안유진	19 청년1부	안채원(1)	2874	임수지	19 청년1부	이종현(12)
2849	이지연	19 고등부	홍순진(1)	2862	최희정	1 청년1부	안채원(1)	2875	이승우	19 청년1부	이종현(12)
2850	김선희	15 청년2부		2863	만수지	19 외선부	김지현				

※ 찬송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년 2004년 새가족 등록식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모임

1. 권사 12회 월례회
일시: 12월1일(수) 주오부 예배 후
장소: 감리리후
2. 남녀전도부 월례회
일시: 오후 1500
장소: 제1교육관 501호
대상: 2005년도 신인전도회향

별세

1. 한금일 성도 주영희 집사의 모친, 4교구 반포7구역 17일 별세, 19일 장례
2. 김병태 타교안수집사 전윤인 안수집사의 장인, 김미리 집사의 부친, 5교구 개포7구역 18일 별세, 20일 장례
3. 임영조 집사 김경희 권사의 남편, 17교구 태평구역 임기상 성도의 부친, 김봉준 성도의 사부, 16교구 산본6구역 22일 별세, 24일 장례
4. 김순정 시모 강국원 권사·강국희 집사의 장모, 이우미 권환희 시모, 1교구 22일 별세, 25일 장례

5. 전옥주 성도 김정순 집사의 모친, 임박준 성도의 장모, 13교구 동촌2구역 25일 별세, 26일 장례

결혼

1. 김천식 군 (양자과 씨의 아들과 최선희 양 (최만창 씨, 황정숙 씨의 딸, 19교구) / 12월 4일(토) 15:30 강남대당동교회원 7층 중도홀

◆음양이론 및 실기교육

각 부서 예배담당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음양이론 및 기기 조작법에 대해 교육합니다. 관계자 및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음양설에 구비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11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십시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육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5:30~6:45
교육장소: 본당 5층 음양실

12월 주일 및 수요일예배 기도 담당

월	일	주일예배 (장로)					천양예배	수요예배	
		I	II	III	IV	V		I	II
12	5	김영달	김영은	김의철	조종환	최지은	현준봉	신진석	유기순
	12	정태두	이성호	배종식	김은호	노영환	전계식	김의숙	홍현기
	19	정창길	박종규	정은숙	정선현	안석현	김태식	김정숙	전경금
	26	고계순	박철규	오진국	안동현	최무길	김환기	김경희	이인숙

이번 주 새벽기도회 담당

	29(월)	30(화)	1(수)	2(목)	3(금)	4(토)	5(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김종호	김용득/김영주	고광철/남용철	이희식/조준민	임현덕/서규성	정성영/한영준	최성규/김연식

예배 담당안내 (12/1-12/5)

날짜	예배	찬 양	사 회	기 도	설 교
12/1	수요 I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호산나 찬양대)	안창덕	이정숙	하나님의 약속된 여자의 후손 (창 3:15) 김성관 목사
12/1	수요 II	내 마음 정결케 하소서(실로암 찬양대)	황진성	김정원	내가 약속한 그대예 (고후 12:9-10) 위건달 목사
12/3	금요일회	15교구(내부) 김성관/소르로 김연희	임현덕	김정원	김성관 목사
12/5	주일 I	(예배 전찬)	최창규	김영달	기묘자 (사 9:6) 이창수 목사
12/5	주일 II	주 예수님은 동에 외/일마누엘 남상종찬단(가도:강만수)	김용득	김영은	기묘자 (사 9:6) 이태복 목사
12/5	주일 III	예수 사랑 하심은 외/현아비중주(할렐루야 오케스트라)	류병희	김의철	기묘자 (사 9:6) 김성관 목사
12/5	주일 IV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외/테니 공병이아엔 찬양대(솔로리스트)	최종환	조종환	기묘자 (사 9:6) 이성진 목사
12/5	주일 V	떡보다 더 귀한 외/소르로 구자엔(찬양대 솔로리스트)	정진로	최지은	기묘자 (사 9:6) 안창덕 목사
12/5	주일찬양	만도린 연주회/가브리엘 찬양대	양재욱	현준봉	부하신 그분 그리고 가난한 그분(고후 8:9) 김성관 목사

예배 및 회화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본 당
	IV 오후 1:00(외국인 동성동체 예배)	본 당
	V 오후 3:00	본 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일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본 당
금요일회	오후 7:0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II 오전 11:00	교육관 110호
유 아 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 지 부	오전 10:50	제2교육관 1층
유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 등 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 등 1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 등 2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 등 3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 등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 년 1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청 년 2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기도원 안내

집 회	시 간	차 량
회교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회교집회	오전 11:00	본당 앞 출발
회교집회	오후 10:30	본당 앞 출발

■ 사무진로

김의철	김준호	노영환	오진국	이병학
2교구장	2교구장	2교구장	2교구장	2교구장
윤원식	이 훈	남상우	정은숙	김영길
1교구장	1교구장	1교구장	1교구장	1교구장
김종구	최무길	이창호	차진석	김정원
3교구장	3교구장	3교구장	3교구장	3교구장
이종식	김영환	임우현	이강현	전준호
4교구장	4교구장	4교구장	4교구장	4교구장
전준호	이정우	김진영	황영일	한승규
5교구장	5교구장	5교구장	5교구장	5교구장
김영주	김원기	한승현	이형수	안두현
6교구장	6교구장	6교구장	6교구장	6교구장
황이만	김구형	최유은	이재민	박덕환
7교구장	7교구장	7교구장	7교구장	7교구장
이태식	정태두	박종규	권영복	조종환
8교구장	8교구장	8교구장	8교구장	8교구장
배준식	김영달	이성호	최지은	노영환
9교구장	9교구장	9교구장	9교구장	9교구장
박종규	정창길	신상수	고계순	강정형
10교구장	10교구장	10교구장	10교구장	10교구장
김영환	이달용	김정원	김순곤	함정호
11교구장	11교구장	11교구장	11교구장	11교구장
윤석민	정진로	안석현	김연기	김정숙
12교구장	12교구장	12교구장	12교구장	12교구장
김종선	임정식	김영주	김영환	김정원
13교구장	13교구장	13교구장	13교구장	13교구장

■ 위임목사 김성관

이종대	정현민	박진기	류병희	이정현
14교구장	14교구장	14교구장	14교구장	14교구장
김영환	여근	김종석	안창덕	나광영
15교구장	15교구장	15교구장	15교구장	15교구장
전준호	김종석	고광환	위건달	김익환
16교구장	16교구장	16교구장	16교구장	16교구장
장 훈	임현덕	이희식	최종환	하종현
17교구장	17교구장	17교구장	17교구장	17교구장
안진희	이태복	정준호	양재욱	이성진
18교구장	18교구장	18교구장	18교구장	18교구장
조규호	최성규	이재민	이경준	이창수
19교구장	19교구장	19교구장	19교구장	19교구장
김준희	한승일	황진성	정성영	
20교구장	20교구장	20교구장	20교구장	

■ 여전도회

정현민	신상수	윤원식	한영준	김연식
21교구장	21교구장	21교구장	21교구장	21교구장
홍순수	이창수	김정원	안창덕	김정원
22교구장	22교구장	22교구장	22교구장	22교구장
조종환	김정원	최종환	전준호	김정원
23교구장	23교구장	23교구장	23교구장	23교구장
김정원	이창수	김정원	이인숙	류진희
24교구장	24교구장	24교구장	24교구장	24교구장
한성민				
25교구장				

■ 찬양감독 강영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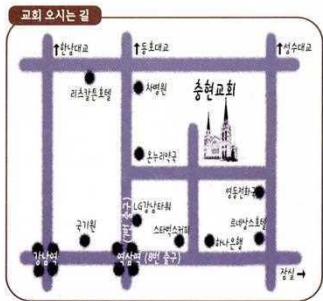
정현민	김준호	노영환	오진국	이병학
-----	-----	-----	-----	-----

■ 찬양감독 김소연

정현민	김준호	노영환	오진국	이병학
-----	-----	-----	-----	-----

■ 찬양감독 최성영

정현민	김준호	노영환	오진국	이병학
-----	-----	-----	-----	-----



심 · 기 · 는 · 본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IV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등 시 특례입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